



남재현

짧은 선발 긴~ 불펜 ... 불타는 KIA 마운드



위기의 마운드, 뒷심싸움도 어렵다. KIA 타이거즈가 18일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랜더스와의 시즌 3차전에서 2-4 패배를 기록했다. 전날 연장승부에서 3-4 재역전패를 당했던 KIA는 SSG와의 첫 대결에서 루징시리즈를 기록했다.

선발 고민으로 시작된 마운드 과부하가 뒷심싸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KIA는 이날 남재현을 '임시 선발'로 내세워 경기에 나섰다. 지난 13일 이민우가 2이닝 6실점 후 엔트리에서 말소되면서 시작된 선발 고민. 지난 15일 롯데전에서 1.1이닝을 소화했던 남재현이 사실상 첫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선두타자 김강민을 불넷으로 내보낸 남재현은 추신수를 3루수 파울 플라이로 잡았지만, 최주환의 우전 안타로 1사 1·3루에 몰렸다. 그리고 로맥의 좌익수 플라이로 선취점을 내줬다. 2·3회를 삼자범퇴로 막은 남재현, 4회도 출발은

KIA, SSG에 2-4 패배 선발 고민에 마운드 과부하 뒷심싸움에 밀려 연패

좋았다. 로맥을 삼진으로 잡았고 한유섭은 유격수 플라이로 처리했다. 하지만 연속 불넷과 함께 남재현의 등판이 83구에서 끝났다. 두 번째 투수로 '루키' 장민기가 마운드에 올랐다. 지난 13일 롯데전 2.1이닝, 16일 SSG전 0.2이닝을 소화했던 장민기가 등판과 함께 몸에 맞는 볼을 기록했다. 그리고 밀어내기 불넷을 허용하면서 0-2. 김강민을 1루수 파울플라이로 잡으며 한숨 돌린 장민기는 5회에도 나와 추신수를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최주환에게 우측 2루타를 내주면서 세 번째 투수 고영창이 등장했다. 고영창이 1.2이닝을 무실점을 처리해준 뒤 7회

김현준이 마운드를 물려받았다. 김현준은 '난작' 추신수와 최주환을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김강민과 로맥에게 각각 솔로포를 맞아 2실점 했다. 이어 KIA는 박진태로 8회를 막았다. 마운드 고민 속 타선의 집중력이 아쉬웠다. 1회초 2사에서 상대 실책으로 2사 2·3루까지 만들었지만, 득점에 실패한 타선. 5회 3연속 불넷으로 맞은 기회에서도 최원준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뽑는 데 그쳤다. 6·7·8회에 5개의 잔루를 쌓은 KIA는 1-4로 뒤진 9회에도 3개의 잔루로 아쉬움을 삼켰다. 1사에서 대타 박찬호가 내야안타로 마지막 기회를 살렸다. 최원준의 불넷 뒤, 김선빈의 1타점 2루타가 나왔다. 하지만 이어진 기회에서 터커가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최형우의 고의사구로 2사 만루, 이창진이 풀카운트 승부 끝에 좌측으로 공을 날렸지만 아쉽게 공은 담장을 넘지 못했다. 시즌 초반 '뒷심싸움'에서 승자가 되며 웃었던 KIA지만 선발진 난조 속 김 승부가 이어지면서 공·수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

전날 1-2로 뒤진 9회초, 동점을 만들며 시즌 4번째 연장승부에 돌입했던 KIA는 아쉬운 수비 속 9개의 잔루를 남기며 시즌 첫 연장전 패배를 기록했다. 18일에도 집중력있는 공세를 펼치지 못했다. 지난 6연전에서 브룩스(6이닝 무실점)와 멩덴(6이닝 2실점)만 선발 역할을 했고, 4경기에서는 선발이 일찍 물러났다. 이민우와 임기영이 각각

2이닝, 3.2이닝만 던지고 엔트리에서 말소됐고, '막내' 이의리의 등판도 4회에서 끝났다. 선발진이 일찍 물러나면서 불펜과 야수진의 수비 부담이 늘었고, 이는 공격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아쉬운 패배가 쌓이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앱 멤버십 데이' 23일 삼성과 홈경기에서 진행

앱 가입 인증 관람객에 경품 제공

KIA 타이거즈가 23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서 'KIA 앱 멤버십 데이'를 연다. 이번 행사는 구단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를 위해 마련됐으며 앱 가입을 인증한 관람객에게 다양한 경품을 나눠준다. 또 지난해부터 앱을 이용해 가장 많이 입장권 예매를 이용한 회원은 선정해 시구·시타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앱을 통해 입장한 관객

중에서 추첨을 통해 스카이박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해주는 '럭키 시트(Lucky seat)'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KIA는 '타이거즈 앱'을 통해 구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티켓팅 및 입장, 식음료 스마트오더가 가능한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 아이디로 본인 인증을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돌아온 골프 천재' 리디아 고 3년 만에 우승컵

LPGA 롯데 챔피언십 28연더파 박인비·김세영 공동 2위

리디아 고(24·뉴질랜드)가 3년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리디아 고는 18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의 카플레이 골프클럽(파72·6397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만 7개를 기록하며 7언더파 65타의 성적을 냈다. 최종 합계 28언더파 260타의 성적을 낸 리디아 고는 공동 2위 선수들을 무려 7타 차로 따돌렸다. 우승 상금은 30만 달러(약 3억3000만원)다. 리디아 고는 2018년 4월 메디힐 챔피언십 이후 3년 만에 LPGA 투어 통산 16승째를 거뒀다. 10대 시절부터 '천재 골퍼 소녀'로 이름을 날린 리디아 고는 15살이던 2012년 LPGA 투어에서 첫 승을 따냈고, 10대 시절인 2016년까지 14승을 거뒀다. 20대에 접어들어 우승한 것은 2018년 4월 메디힐 챔피언십에 이어 이번 대회가 두 번째다. 그는 24일 자신의 24번째 생일을 맞는다. 3라운드까지 넬리 코르다(미국)에게 1타 앞선 단독 1위였던 리디아 고는 이날 초반부터 타수 차를 벌려 비교적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했

다. 리디아 고가 3년 홀(파4) 버디로 2타 차를 만들었고 코르다가 8번 홀(파3) 보기, 리디아 고는 9번 홀(파4) 버디로 엇갈리며 순식간에 4타 차가 됐다. 여유가 생긴 리디아 고는 12번 홀(파3)까지 4개 홀 연속 버디로 2위와 간격을 5타 차 이상으로 벌려 낙승 분위기로 몰고 갔다. 리디아 고는 올해 5개 대회에 나와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피레이션 준우승을 비롯해 우승 1회와 준우승 2회를 기록했고, LPGA 드라이브 챔피언십 공동 8위 등 10위 안에 네 차례나 이름을 올렸다. 시즌 상금 79만 1944달러를 번 리디아 고는 상금 1위가 됐다. 리디아 고는 이달 초 ANA 인스피레이션 최종라운드에서 10언더파 62타의 맹타를 휘둘렀고, 이번 대회에서도 1라운드 11번 홀 외에는 보기가 없는 완벽한 경기를 펼쳤다. 이날 이글 1개와 버디 7개를 몰아친 박인비(33)가 최종 합계 21언더파 267타로 준우승했다. 박인비는 올해 3개 대회에 출전해 KIA 클래식 우승과 이번 대회 준우승, ANA 인스피레이션 공동 7위 등 모두 10위 이내 성적을 냈다. 2015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김세영(28)도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코르다와 리오나 매과이어(아일랜드)도 박인비, 김세영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리디아 고

9개의 유효슈팅 ... 골 운이 없었다

광주FC, 포항에 0-1 아쉬운 패배 K리그2 전남, 김천상무 꺾고 2연승

광주FC가 물량 공세에도 포항전 첫승 달성에 실패했다. 광주가 지난 17일 광주죽전운동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의 K리그2 2021 10라운드 홈경기에서 0-1패를 기록했다. 15개의 슈팅을 날리며 이 중 9개를 유효슈팅으로 만들었지만 모두 포항 골키퍼 강현무에 막혔다. '포항전 무승 고리'를 끊기 위한 도전이 실패로 끝나면서, 광주의 포항전 역대 전적은 0승 6무 13패가 됐다. 경기 시작과 함께 '루키' 엄지성이 슈팅력을 발휘했다. 펠리페가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공을 넘겼고, 김주공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엄지성에게 패스를 했다. 엄지성이 바로 오른쪽으로 슈팅을 날렸지만, 포항 골키퍼 강현무의 슈퍼세이브에 막혔다. 팽팽한 공방전이 전개되던 39분. 막내 엄지성이 다시 한번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다. 하지만 공은 아쉽게 골대를 맞았다. 펠리페가 튀겨 나온 공을 잡아 재차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강현무의 손이 빨랐다. 광주가 공·수에서 포항을 압도하며 경기를 펼쳤지만, 후반 13분 한 번의 위기가 승패를 결정했다. 포항의 타수가 교체해 들어오자마자 광주 진영

을 빠르게 파고들었고, 알렉스가 손으로 타수를 밀었다는 판정과 함께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직접 키커로 나선 타수가 광주의 골망을 흔들면서 '0'의 균형을 깼다. 선제 실점 뒤 광주가 실세 없이 포항의 골대를 두드렸다. 헤이스를 중심으로 엄지성, 펠리페, 이민기, 김원식까지 포항 골대를 겨냥했지만, 마지막 골라인을 넘지 못하면서 경기는 0-1패로 끝났다. 역시 안방에서 승부를 펼친 전남드래곤즈는 2연승에 성공했다. 전남은 18일 광양전운동장에서 열린 김천상무와 K리그2 2021 7라운드 경기에서 김현욱의 멀티골을 앞세워 2-1승리를 거뒀다. 안산전 알렉스의 '극장골'로 4위로 올라섰던 전남은 연승에 성공, 3승 3무 1패(승점 12)로 2위까지 뛰어올랐다. 1위 대전하나시티즌과는 승점 3점차. 0-0의 공방전이 전개되던 후반 20분 김현욱이 문전 혼전 상황에서 박희성의 패스를 받아 왼발로 슈팅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38분 김현욱이 다시 한번 골 세리머리를 펼쳤다. 오른쪽에서 치고 오른 김현욱이 사무엘의 패스를 오른쪽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멀티골을 장식했다. 전남은 후반 추가시간 정승현에 골을 내줬지만 그대로 리드를 지키면서 수원FC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 포함 3연승 집주를 이어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